

# 전주 탄소융합기술원, 국가기관 '탄소산업진흥원' 승격

### 산업부 의결, 내년 초 정식 출범...탄소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효성, 탄소산업 주도...전북도 조례 제정 등 적극 지원 나서

전주시에 있는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불리는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됐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준비위)를 열어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의결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다.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산업 정책 수립과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탄소 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앞서 산업부는 운영준비위 위원 5명으로 평가단(단장 박종래 서울대 교수)을 구성해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한국탄

소융합기술원(전주)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영천) 등 2개 기관을 평가했다.

현장 실사와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진흥원으로서 갖춰야 할 효율성·준비성·미래비전 등이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보다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역량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탄소특화 국가산단 지정, 국내 최초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탄소융복합 분야의 인프라와 그 동안 지역산업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시켜온 전북도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가 크게 작용한 걸로 알려졌다.

아울러 탄소산업 전문가와 기업인들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연구개발 성과 및 기업 지원 실적, 그리고 R&D 및 시장 개척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성 분야에 있어 타 후보 기관보다 매우 월등하여 진흥원으로서 최적의 기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운영준비위는 의결 결과를 산업부 장관에게 보

고하고 관련 행정 절차 등을 진행하여 이르면 내년 초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이번에 지정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진흥원이 조기에 안착토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관련 기술 개발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매진해 대한민국의 탄소 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북이 씨를 뿌린 탄소산업이 혁신을 통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산업은 지난 2006년 전주시가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정하며 등장했다.

이후 전국 최초 기초지자체 탄소산업 전담부서 설치와 효성 전주공장 준공을 이끌어냈다.

민선 6기 들어 전북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탄소산업 육성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정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는 3일 서울 세라톤팔래스호텔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의결했다. /연합뉴스



남원 광한루 야경.

## “남원 광한루의 밤 유튜브로 즐겨요”

### 13일까지 온라인 문화재 야행

남원시가 한밤의 문화재 체험행사인 '2020 남원 문화재 야행(夜行)'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오는 13일까지 연다.

남원시는 애초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광한루 600년 달나라 궁전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광한루의 밤 풍경과 남원 이야기 토크쇼, 밤에 즐기는 남원의 문화재, 남원시립국악단의 공연 등을 유튜브로 중계한다.

지역의 특산품과 농산물 꾸러미도 싸게 판매한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 국민연금공단연수원, 정읍에 등지 튼다

### 6만여㎡ 부지 460억 투입 지상 4층 규모 2025년 완공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이 정읍시에 등지를 튼다. 유전설 정읍시장은 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이 정읍 내장산 문화관광 인근인 부전동 일원에 건립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북지역 11개 시·군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정읍시를 연수원 건립지로 확정했다. 총사업비 460억원이 투자되는 연수원은 6만 1600여㎡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내년 첫 삽을 뜨고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정읍시는 공유재산 매각 승인을 빠르게 끝내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건립 예정지는 국민여가캠핑장과 내장산위터파

크 등이 조성된 내장산 문화관광 인근에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췄다. KTX와 SRT, 고속버스 등 편리한 교통인프라도 장점으로 꼽힌다.

유 시장은 "7500여명의 공단 직원과 가족이 연수원을 이용해 지역 농축산물 소비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농촌영화제 폐막...드라이브 시네마 호응

### '내고향은, 고창' 등 농촌 3분 영화제 10개 작품 선정

제3회 고창농촌영화제가 지난 1일 사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막을 내렸다.

국내 유일·국내 최초 고창농촌영화제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고창에서 #영화 #보리'란 주제로 열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치고 힘든 이들을 위한 가을밤 힐링영화제의 모습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개막식 그린카펫 입장식에선 영화제 초청 게스트들과 농촌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내빈들이 나란히 그린카펫 위를 걸으며, 농촌과 영화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부각시켰다. 또 드라이브 시네마는 그동안 마음 놓고 극장 외출을 하지 못했던 많은 가족, 연인, 친구들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전 좌석 매진 기록을 세웠다.

무비토코-힐링시네마에선 영화 '나는 보리' 김진유 감독과 봉만대 감독이 재치 넘치는 입담과 교

훈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결핍된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했다.

폐막식에선 높을고창 영화학교(교장 봉만대 감독) 학생들이 만들어낸 메이드 인 고창 작품 2편을 폐막작으로 상영했고, 농촌 3분 영화제 수상작들을 함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올해 대상에는 고창의 아름다운 농업농촌 경관을 배경으로 수려한 영상을 촬영한 '내 고향은, 고창(이한울)'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우리 아이의 정답은 고창입니다(조훈도)', 우수상에는 '고창에서는(지주희)', '시간의 섬, 고창(박춘연)'이 각각 받았다. 장려상은 '고창은 맑음(정혜운)', '결혼하는 이들에게 고창(공지수)'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입선작 4개 작품을 포함해 모두 10개의 영상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짬뽕의 도시' 군산서 온라인 짬뽕 페스티벌 연다

군산시는 '2020 군산 짬뽕 페스티벌'을 7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연다고 3일 밝혔다.

축제는 군산의 대표 음식인 짬뽕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다. 그동안 군산시간여행축제와 연계해 개최하기로 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축제로 전환했다.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짬뽕특화거리에서는 흥등과 네온사인인 거리를 빛낸다. 짬뽕을 주제로 한 다양한 포토존을 구성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축제 기간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에서는 ▲짬뽕UCC 공모전 ▲100인의 짬뽕요리사 ▲군산 갈래 찢린지 ▲짬뽕먹방의 달인 ▲거리 속 숨겨진 나의 한 끼 ▲인생샷 인생짬뽕 ▲군산짬뽕거리 도장깨기 ▲군산짬뽕 컬러링북 등 다채로운 비대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 名 作 名 作 名 作

## 광화문父子작명가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 당시 白山 선생

###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 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作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